이기심과 이타심 그리고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 Critical Study on Selfishness, Altruism and Rationality -

박 상 수*
(Park, Sang-Soo)

목 차

Ⅰ. 서 론
Ⅱ. 이기심과 이타심
Ⅲ. 주관성 합리성
Ⅳ. 주관적 합리성과 이기심
Ⅴ. 결 론

Ⅰ. 서 론

경제학은 원래 스미스 이래로 도덕철학의 한 분과이었으며, 윤리학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870년대 이후 이런 성격이 정통학파에서 거의 배격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학이 연구하는 인간은 차가운 냉혈동물, 합리적인 기계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인간의 행동은 아주 단순하게 특징지어지는 동기에 근거해서 분석된다. 예컨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경제학에서 다루어야 할 인간은 계산만 잘 하는 기계가 결코 아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로 이기적이지만 다른 때에는 이타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이 실재로 존재하는 인간인 것이다. 이런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하는 인간이며, 이에 따라 이런 인간에 대한 분석은 행동의 목적까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이기적이어야 하는가 혹은 이타적이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논쟁을 검토하면서 이기심과 관련된 합리성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이기심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순수한 이기심, 불순한 이타심 그리고 순수한 이타심도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인간이 이타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이타심이 궁극적으로는 이기심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합리성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이런 합리성이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한편 오스트리아학파의 주관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객관적 합리성에 대비되는 주관적 합리성의 개념도 도입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합리성에 대한 네 가지 측면의 비판을 검토하면서, 세 가지 측면의 비판에 대해서 주관적 합리성에 의해 합리성을 옹호하였다. 제 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기심과 이타심

인간은 이기적인가 아니면 이타적인가에 관해선 윤리학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논쟁거리이다(Taylor, 1975, pp.58-82 참조). 물론 본 논문에서 이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전제하에서 경제학의 합리성이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이기심에 관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타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합리성은 와해될 것이며, 그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불가능할 것이다.

2.1 Smith와 이기심

이기심 하면 당장 상기되는 사람이 바로 Smith이다. 그는 그의 『국부론』(1776)에서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p.22) 이 인용문은 스미스의 이기심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를 예시하는 문장이며,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스미스 하면 무조건 이기심만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이기심(self-interest)은 물론 무자비한 이기주의와는 달리 동감(同感)에 기초한 이기심이며 신중한 행동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덕목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후대의 경제학자들은 이기심을 협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스미스의 이론에서 이기심이 그의 이론의 전부를 구성한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단적인 예가 "보이지 않는 손"의 강조이다.

스미스는 그의 『도덕감정론』(1759)이나 『국부론』에서 이기심을 최우선적인 위치에 놓지 않았다.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옹호는 특별한 맥락에서만 등장하는데, 특히 상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훼방하려는 당대의 다양한 관료적 장애와 경제거래의 다른 제약과 관련해서 등장한다."(Sen, 1987, p.25) 즉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언하면 이기심의 발휘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성취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기심이 등장하고 있으며, 스미스는 빈곤과 실업 등이 자연의 인색함에서도 오지만 시장의 결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구빈법의 폐지 등에는 앞장서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스미스가 이기심과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만을 중시하지는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스미스는 신려(愼慮, prudence)의 덕목을 중시했으며, 이런 신려(여기에서의 논의에선 이타심에 근접하는 개념이다)는 이기심과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이런 신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이 이기적인가 혹은 이타적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심리상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순수한 이기심이며, 둘째는 2차적인 이기심이고, 셋째는 순수한 이타심이다. 한 개인의 심리는 이중 어느 하나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심리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2 순수한 이기심

인간 행동의 배후에는 언제나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

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련을 맺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이익의 증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 이를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기적인 행위는 타인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혹은 타인의 이익을 오히려 증진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타인의 이익을 감소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이기심(selfishness)과 자기이익(self-interest)은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자기와 타인 모두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그 자신의 정당한 몫 이상을 가지려고 타인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경우, 자신의 행동에 의해 타인이 해를 입어서 상처받거나 혹은 고통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무자비하게 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자기이익은 타인의 희생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스미스의 이기심은 후자의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서는 이기심과 자기이익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이기심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 구분을 시도하지 않기로 한다.

테일러(Taylor, 1975, p.61)는 인간 행위의 동기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악의(惡意) 없이 자기 이익을 목표로 하는데, 이 동기는 오로지 행위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이익이 좌절될 수도 있다. 둘째는 순수한 악의(惡意)에 해당되며, 이 동기는 타인의 이익을 좌절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욕구이다. 셋째는 행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욕구이다. 넷째는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욕구(순수한 자선, 이타주의)이다. 다섯째는 의무라고 믿기 때문에 수행하는 행위 혹은 책무감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이런 동기들 중 실제로 어느 하나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현실적으로는 여러 동기가 혼재된 상태에서 행동이 실행될 수 있다. 첫째와 둘째 동기로부터 발생하는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즉 순수한 이기심에 해당한다. 문제는 셋째 이하에서 발생하며, 그 문제는 다음 항목 이하에서 검토될 것이다.

2.3 불순한 이타심

인간에게 최상의 덕목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타심 혹은 이타주의(altruism)는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 약간 혹은 전부를 기꺼이 희생하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 행동들은 정말로 이타적인가?

위에서 언급된 행동의 동기 중에서 셋째는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선단체의 후원자는 수혜자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명예에 의해 자극받을 수도 있다. 즉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기부가 가시화되고 공개되는 것이지 누가 그 혜택을 받는가가 아니다(Elster, 1990, p. 69).

이런 행동은 겉으로는 자선적 성격을 띄고 있어서 이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기적인 행동에 속한다. 이런 동기를 우리는 불순한 이타심(impure altruism)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불순한 이타심은 사실 결코 나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타심은 장기적으로 이기적인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순한 이타심을 우리는 2차적인 이기심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타적인 행위이지만, 2차적으로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적인 이기심, 즉 불순한 이타심은 궁극적으로 이기심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4 순수한 이타심

인간의 덕목 중 가장 위대한 덕목이 이타심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며, 개인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이타심을 우리는 순수한 이타심(pure altruism)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타적이라면 즉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타심 역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타심은 타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인이 행동할 때에 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자신의 쾌락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쾌

락을 위해 선물을 준 것이다. 즉 이타심이 존재하려면 우선적으로 이기심을 갖는 사람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타적이라면, 이타적 행위의 대상은 소멸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이타적인 행동도 불가능하게 된다.

순수한 이타심의 사례는 많다. 순수한 자선행위, 즉 익명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의무감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조세의 성실한 납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등이 있다.

물론 이에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했으나 그 혜택이 특정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기부는 기부자의 쾌락(즉 수혜자가 혜택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서 쾌락을 느끼는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부모를 돕지 않으면 친구나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부모가 자식을 돌본다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역시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세회피로부터 어떤 위험(예컨대 영업정지 혹은 벌과금 혹은 육체적인 형벌)도 기대되지 않음에도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어쩌면 사회적 제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성실한 조세납부가 자신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앞의 사례는 2차적 이기심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이타심은 익명에서 익명으로의 선물만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타심만이 순수한 이타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것은 자발적인 헌혈이라고 할 수 있다(Elster, 1990, p.71).

2.5 순수한 이타심과 이기심

인간이 행동할 때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기를 갖고 있다. 순수한 이기심과 불순한 이타심은 분명히 자신의 이익이라는 동기를 갖고서 행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순수한 이타심은 자신의 이익이라는 동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이타심의 내면에는 자기 지향적인 욕구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앞에서 순수한 이타심은 익명에서 익명으로의 선물만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몇몇 사례를 예시하면서 순수한 이타심도 이기심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Taylor, 1975, p.63도 참조하시오).

우선 신앙생활은 순수한 이타심은 아닐지라도 비이기적인 행동에 속한다. 신을 믿는 행동은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혹은 신으로부터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타난다. 즉 신앙생활은 신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보상(예컨대 구원 등)을 바라서 나타나므로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부자들의 수용을 검토해 보자. 부자의 소득의 일부가 조세로 거두어져서 무명의 저소득층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부자들이 수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은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행동으로부터 발생할 호평을 얻기 위해서 혹은 보험적인 목적(나중에 자신이 가난해지거나 혹은 자손이 가난해질 경우를 대비해서)을 위해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부자들의 지지도 사실상 이기적인 목적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순수한 자선행위를 들 수 있다. 헌혈하거나 장기를 기증하거나 혹은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순수한 이타적 행위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혹은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익명의 사람들에게 익명의 사람들이 자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자아고취라고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즉 자선 그 자체가 그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선사한다.

즉 일정한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했을 때 얻는 쾌락보다는 자선을 했을 때의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자선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언하면 옷이나 가전제품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만족은 극히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헌혈을 하지 않거나 장기를 기증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헌혈 혹은 장기기증을 하였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혼자만이 느끼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행동들도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에 속한다.

넷째는 의무를 지키는 행위.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특히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갖지 않은 채 단지 의무적으로 세금을 잘 납부하거나 법을 잘 준수한다. 그들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며, 이런 불쾌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무를 준수한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의미에서 이기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면서 순수하게 이타적이거나 혹은 비이기적인 행위도 결국 이기심에 의해 분석될 수 있음을 보았다. 즉 순수한 이타심은 처음부터 이기적이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기심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순수한 이타심을 우리는 고차원적 이기심(high-ordered selfishnes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합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기적인 개인에 대한 분석은 확고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성을 비판할 때 인간이 비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이어서 합리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주관적 합리성

여기서는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중시하는 주관주의를 검토하고, 아울러 주관주의에서 유추되는 주관적 합리성을 검토해 보자.

3.1 주관주의

주관주의는 특히 경제학에서 수요이론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시되고 있으며, 비용이론에서도 주관주의적인 접근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관주의는 오스트리아학파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다. 주관주의(subjectivism)는 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사실적 지식의 유일한 기초라고 생각하는 방법론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자연과학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하이에크(Hayek, 1952, p.41)에 따르면 사회과학은 "사물들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 혹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다룬다. 사회연구는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혹은 설계되지 않은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사실들은 사실상 "행동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자연과학에서처럼 주어지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아니며 행동하는 개인들의 주관이다.

결과적으로 경제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루어야 하며, 가격과 비용 등의 개념도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3.2 합리성

합리적인 행동에 관한 가정은 현대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되며, 이런 특별한 가정이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행동은 실제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합리적인 행동을 가정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하는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논란거리이다. 정통경제학에서 합리적 행동에 대한 가정이 비록 용납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 인간은 정말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또한 혼동 속에 빠져 있기도 한다. 특히 제3자가 한 인간을 관찰하는 경우 그 사람의 행동은 비합리적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방법론적 차원에서 합리성을 옹호하는 한 관점은 합리성이 인간의 실제 행동은 아닐지라도 이런 가정이 경제학의 예측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왈라스는 한계효용의 측정 가능성을 가정하면서 비록 이런 가정이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가정이 경제학에게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비현실적인 가정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도구주의적인 주장이지만(도구주의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Pheby, 1988, pp.132-53을 참조하시오),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이런 관점에서 많이 옹호되고 있다.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은 비합리적인 행동이지만, 만약 비합리적인 행동을 가정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경제이론을 도출하기가 극히 어려워질 것이다.

정통학파에서 강조하는 합리성의 가정은 객관적 합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학파는 그런 합리성이 이론적으로 혹은 가상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소 극단적으로 언급한다면, 고전학파의 합리성은 제도가 무시되며 지식의 완전성이 가정되고 가치중립적인 환경에서만 성립되는 객관적 합리성이다. 따라서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거래비용도 없고, 명백하게 정의되고 희석되지 않는 재산권으로 특징지어지는 마찰 없는 세계에서 만족극

대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마찰 없는 세계에서 행동하는 개인은 경제인(homo economicus)이며, 원자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주체이며, 그리고 외생적으로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목적함수를 극대화한다. 목적함수의 핵심적 성격은 고전적 합리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합리성은 이시적으로 안정적이고,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호와 선호를 포함한다.

제약조건들은 전형적으로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가정되며, 반면에 고전적 합리성은 경제인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oth, 1999, p.7-8).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극대화문제는, 하이에크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수학에 의해서 해결되는 "선택에 관한 순수논리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Hayek, 1937, pp.55-83을 참조하시오).

이런 고전적 합리성은 달리 말하면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혹은 사상이 타인(second - person)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전제(non-tuism)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개개인은 타인과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사고나 행동이 그 개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Lutz, 1999, p.151).

이때 우리는 이기심에 의거해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를 합리적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전제하에선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심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고려될 필요도 없게 된다.

3.3 주관적 합리성

합리성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 즉 목적을 가장 잘 성취시키는 수단, 즉 최선의 수단을 발견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그리고 목적 자체에 대한 선택은 여기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진진한 논의는 미제스(L. von Mises)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미제스는 행동에 관한 학문(praxeology),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학은 수단에 관한 학문이지 목적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이한 사람들에 의해 선택된 목적들에 관해선 어떤 가치판단도 시도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Pheby, pp.158-9).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히피부락을 건설하기 위해 직장을 버렸다고 할 경우에도 그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선 그들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즉 그들의 행동이 합리적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그들

의 목적이다.

또한 합리적인 행동에는 실수를 저지르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주어진 환경과 정보하에서 어떤 개인이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나중에 실패한다면, 비록 결과적으론 실패로 불합리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될 수는 있으나 합리성은 의사결정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당시의 상황에선 투자가 최선의 선택이었으므로 그 결정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으나 실패하게 된 것은 정보가 불확실하였거나 혹은 환경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선 충동구매와 같은 변덕스런 행동조차도 합리적이 된다. 즉 목적이 예컨대 옷을 사는 것에서 가구를 사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변덕도 합리적이 된다(Pheby, pp.159-60).

이런 미제스의 합리성은 궁극적으로 주관주의에 입각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그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범죄를 법이 금지하고 또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자의 병적인 행동에서 유발된다기보다는 범죄자의 목적 성취라는 수단의 선택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Lutz, pp.155-6).

Ⅳ. 주관적 합리성과 이타심

4.1 합리성에 대한 비판

합리성에 대한 비판은 네 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합리성에 보조적인 가정들에 대한 비판이며, 둘째는 이기심에 근거하는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고, 셋째는 합리성의 결과로서 효율성이 창조되는가에 관한 비판이며, 넷째는 경제학은 인간행동의 목적 혹은 사회 전체의 목적을 분석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첫째로 어떻든 합리성에 대한 많은 비판은 합리성 자체보다는 합리성에 보조적인 가정들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생적 선호의 불안정성, 정보의 비대칭성, 제도의 영향 등이 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Roth, 1999, pp.8-15를 참조하

시오) 즉 선호가 대단히 가변적인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행동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선호 자체가 대단히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그 행동도 불합리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혹은 비합리적이거나 혹은 제도 자체가 급격히 변한다거나 한다면, 제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행동도 합리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성이 성취되기 위해선 선호와 기호의 안정성, 정보의 완전성, 제도의 안정성 및 완전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조건은 현실에선 결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Lutz(pp.156-7)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중적이라고 주장한다. 크게 대별하면 이기적인 성향과 이타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중적 성향은 선호에도 영향을 주며, 상황에 따라 이기적으로 혹은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차원의 이기심으로 합리성을 정의하는 사고방식은 인간을 원숭이나 쥐와 같은 동물 혹은 지능이 낮은 "사회적 얼간이"(social moron)로 생각하게 만든다. Berlin(1969, p.171)은 "모든 가치가 숫자로 등급화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장 큰 값을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계산의 문제라고 가정하는 것은, 본인에게, 인간은 자유로운 주체라는 우리의 지식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리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이 계산자가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환언하면 인간이 이기심이라는 단일 목적을 갖는 인간이라면, 인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며, 하등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물론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불순한 이타심을 갖기도 하고 또한 순수한 이타심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이 실제로 이기적이라는 가정은 인간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관점에서 잘못된 가정인 것이다. 물론 인간이 실제로 이기적이지는 않지만 이기적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많은 이론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은 셋째 비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셋째로 합리성을 가정하면 소위 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즉 시장경제에서 개개인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미스가 주장하는 바도 바로 이것이다.

효율성을 창조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시장의 성공은 이기심에 입각한 합리성이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런 자유시장의 성공은 그런 경제에서

행동주체의 배후에 어떤 행동동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 예컨대 일본 경제에서 일본인들은 이기적인 행동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집단적 충성심 혹은 집단적 의무를 그들의 행동동기로 삼음으로써 산업적인 성공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Sen, 1987, pp.18-20).

특히 집단에서는 각 구성원이 부분적으로 일치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집단적 충성심에 근거하는 행동은 개인적 이기심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집단적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적 이익도 더 크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들이 존재하는 한 이기심에 의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합리성은 사실상 앞에서 미제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수단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 한정되고 있다. 경제학이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으로 간주되고 그에 집중함으로써 인류에게 엄청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스미스에서 J. S. Mill에 이르는 고전학파는 사실상 목적에 대한 문제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국가 전체의 복지 등과 같은 공동선(common good)에 관한 문제는 최근 사회경제학(social economics)에서 주목되고 있는 현상이다. 공동선의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경제를 단순히 이기심과 그에 따른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에 의해서만 분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수량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가 되며, 윤리적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4.2 이타심과 합리성

인간의 행동은 다중적 성격을 보유하기 때문에 단일 차원의 이기심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이런 반론에 대해 주관적 합리성은 단순한 이기심만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에 입각한 행동(이타적 행동)까지도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다.

주관적 합리성은 인간행동이 목적 추구적이라는 데에 동의하며, 그 목적이 단 하나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여러 목적이 동시에 추구되는 경우에 행동하는 개인은 자신의 주관적 가치(소위 주관적 가중치)에 따라 자신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

는 방향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게된다. 물론 이 때의 선택은 주어진 기호 등 정태적 조건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다. 이를 정태적 주관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상태,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선택을 분석한다면, 우리는 그 개인의 최초의 선택이 다음 순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초의 선택은 다음의 선택을 결정할 때 선호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Lutz(1999, pp.156-7)가 언급하는 것처럼 최초의 선택이 이기심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다음의 선택에서는 탐욕스러움을 보이지 않으려는 열망, 즉 자존(self-worth)이 그의 선호를 변경시키는 경우도 충분히 분석 가능하다. 주관적 합리성에 따르면 최초의 목적은 이기심, 즉 만족극대화이었으나, 그 욕구의 충족 이후에는 목적이 자존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그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존도 사실상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기심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자존에 따른 행동 역시 합리적 선택인 것이다.

이런 이타적 성향에 대한 분석은 어떤 집단의 각 구성원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social ethos)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면, 행동하는 개인은 사회적 비난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의 희생도 행동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며, 동일한 상황이 다시 전개되어도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지식의 불완전성, 제도의 마찰 등도 합리적 선택(객관적 의미의)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합리성은 불완전한 지식 하에서의 합리적 선택을 주장한다.

즉 주관적 합리성은 그런 불완전한 지식에서는 행동하는 개인의 선택이 제3자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선 합리적이며, 그리고 그런 입장에 그 사람이 다시 선다고 하여도 그런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제도의 변화 등도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그리고 그런 영향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제도(합리적인 제도이든 불합리한 제도이든) 내에서 합리적 선택을 가능케 한다.

V. 결 론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인간이 이기적인 면을 가지면서도 이타적인 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순수한) 이타심도 궁극적으로는 이기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기심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협의적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타인의 처지까지 생각할 줄 아는 불순한 이타심 즉 2차적 이기심도 포괄하고 있으며, 자신의 희생하에서 정말로 타인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이타심까지도 궁극적으로 고차원적인 이기심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기심은 의무감 혹은 책임감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동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정통학파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은 보편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에 기초한 합리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합리성에 대한 네 가지 비판을 검토하면서 본 논문은 주관적 합리성에 의거해서 세 가지 비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런 주관적 합리성은 인간의 지식의 불완전성, 제도나 선호의 가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인간이 주관적으로 합리적이며,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중적인 성향, 즉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와 집단적인 성향에서 개인적 희생까지도 합리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기심에 입각한 합리성이 정통경제학의 이론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런 이론 역시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기심에 입각한 합리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이기적이어야 하는가 이타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복지와 같은 공동선에 관한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인간이 악의적 동기 혹은 책략이나 술수를 내포하는 이기심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이기심에 근거한 합리성에 따라 형성되는 경제는 막스 베버가 소위 말하는 천민자본주의에 해당될 것이다. 스미스가 비록 이기심이 인간의 본연적인 성격이라고 하였으나 그가 상상하는 경제는 이런 천민자본주의는 결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책략이나 악의적인 동기를 내포하지 않는 이기심에 의해 행동이 자극 받을 때 성취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정통학

파의 합리성이나 오스트리아학파의 주관적 합리성에 의해서는 분석될 수 없는 인간의 목적 혹은 사회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이다.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합리성은 경제학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우리가 개인의 목적이든 사회의 목적이든 목적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면 보다 나은 경제학과 경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다룰 만큼의 여백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박상수(2000), "하이에크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3호, 한국경제학사학회, pp.176-197

Berlin, I. (1969),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pp.118-172.

Elster, J.(1990), "Selfishness and Altruism", in *Beyond Self-Interest* (ed. J. J. Mansbrid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44-52. Reprinted in *Economics, Ethics, and Public Policy* (ed. C. K. Wilb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8), pp.69-77.

Frankena, W. K. (1973), *Ethics* (황경식 역: 『윤리학』, 종로서적, 1985), 2nd ed., Prentice-Hall.

Hayek, F. A. (1937), "Economics and Knowledge", *Economica*, IV(new ser., pp.33-54). Reprinted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박상수 역,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자유기업센터, 1998), ed. by F. A. Haye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1952),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Studies on the Abuse of Reason*, Liberty Press, 2nd ed. 1979.

Lutz, M. A. (1999), *Economics for the Common Good : Two Centuries of Social Economic Thought in the Humanistic Tradition*, Routledge.

Pheby, J. (1988), *Methodology and Economics : a Critical Introduction* (박상수 역, 『경제학방법론』,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MacMillan Press.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 Harvard University Press.

Roth,T. P.(1999), *Ethics, Economics and Freedom: the Failure of Consequentialist Social Welfare Theory*, Ashgate.

Sen, A.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Blackwell.

Shand, A. H. (1984), *The Capitalist Alternative: an Introduction to Neo-Austrian Economics*, Wheatsheaf Books.

Smith, A. (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6th ed. edited by D.D.Raphael and A.L.Macfie (박세일, 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행 역, 『국부론』 상권, 동아출판사, 1992), Clarendon Press.

Taylor, P. W. (1975), *Principles of Ethics* (김영진 역: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광사, 1990), Dickenson Publishing Company.